

## 복면 쓴 '5·18 시민군' 찾았다

광주시, 군용지프 탄 사진 속 주인공들 '광주시민' 확인

1980년 5·18 민중항쟁 당시 군용 지프(Jeep)에 올라 마스크를 쓰고 광주 도심에 순찰하던 사람들이 "시민이었다"면서 자신을 북한군으로 주장하는 일부 세력의 왜곡 움직임에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북한군이 아닌 5·18 시민군이라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광주일보 4월 28일자 7면〉

광주시와 5월 관련단체는 "1980년 5월 광주민중항쟁 당시 복면을 쓰거나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활동한 사진 속 주인공 2명을 확인했다"면서 "그동안 이들을 북한군으로 몰아세웠던 세력에 대해 형사 고소·고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복면부대'를 '북한 특수군'이라며 왜곡하는 시도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지난달 28일 '복면 쓴 5·18 시민군을 찾는다'며 5·18 당시 복면 부대원으로 활동하던 남성 2명이 찍힌 사진을 공개한 뒤 이들 주인공들을 찾아내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사진 속 주인공은 광주에 사는 양모(53)씨와 구모(51)씨로, 이들은 최근 광주시를 찾아 자신들이 5·18 당시 시민군이

5·18 당시 '2인1조' 순찰임무 현재 구속부상자회 회원 활동 "북한군" 왜곡에 법적대응 준비

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5·18 당시 시민군 소속 기동타격대원이었던 이들은 광주 시내에서 '2인 1개조'로 한 팀이 대 군용 지프를 타고 광주시내를 순찰하는 임무를 맡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칼빈 소총으로 무장한 채 방석모(防石帽·돌 등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쓰는 경찰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두른 이들은 80년 5월 25일~27일까지 3일간 군용 지프를 타고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조선대를 거쳐 방림동까지 광주시내를 순찰하던 중이었다.

현재 (사)5·18 구속부상자회 소속 회원인 이들은 소속 단체에서 회원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이들의 증언을 토대로 5·18 당시 전교사계

엄보통근법회의판결문과 수사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이들의 당시 활동사항이 담긴



1980년 5월 25일~27일 광주 시내에서 군용 지프를 타고 순찰활동 중인 5·18 시민군 양모(53)씨와 구모(51)씨의 모습.

기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들이 5·18 시민군인 사실이 확인된 만큼 자신들을 북한군으로 왜곡한 일부 세력에 대해 법적 대응을 벌이겠다는 입장이다.

일부 세력들은 지난해 말부터 책(5·18 분석 최종보고서)과 강연회(서울·부산), 인터넷 게시물 및 동영상(유튜브 등) 등을 통해 5·18 당시 복면 쓴 시민들을 북

한군이라고 지칭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5월 관련단체가 지난 2012년 일부 세력이 5·18은 폭동이고 북한군이 개입한 내란 음모였다는 주장을 펴고 소환한 적이 있는데, 당시 재판부는 허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개개인을 특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단 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간주했다"고 말했다.

이충행기자 golee@kwangju.co.kr

## 황사 발원지 고비사막에 희망의 나무를 심다

사막화에 신음하는 몽골

● 사라지는 초원

몽골 고비사막=박지경 기자

국회의원 연구모임 '나무 심는 사람들'과 (사)나무 심는 사람들' 회원, 롯데백화점 직원 등 50여명은 지난 8일 새벽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의 칭기즈칸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우리 산림청이 주관하는 '나무심기'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몽골의 산림지대는 3%에 불과하다. 산은 나무가 거의 없는 '대머리산'이 대부분이다. 특히 전 국토(한반도의 7.4배)의 78% 정도가 사막이거나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다. 초원과 바람의 나라 몽골에 바람만 남고 초원은 사라지고 있다.

호텔에서 잠시 눈을 부친 일행은 아침 일찍 비행기로 고비사막으로 갔다. 우문고비(남고비) 아이막(도)의 달란자가드 구루반사이칸공항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바라본 고비사막 인근 땅에 호수와 강은 보이지 않았다. 마치 모래폭풍이 휩쓸고 간 후의 땅을 보는 듯했다. 과거에는 물길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흔적만 남아 있었다.

국회의원 등 '나무심는 사람들'

몽골 그린벨트 조림 사업 참가

고비사막은 동서 길이가 1600km에 이른다. 고비란 몽골어로 '풀이 잘 자라지 않는 거친 땅'이란 뜻이다. 이 뜻처럼 고비 대부분은 암석사막이어서 모래지역은 매우 적다. 한반도에 오는 황사의 대부분은 고비를 발원지로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공항에서 산림청이 만든 달란자가드 조림지로는 SUV 차량을 이용했다. 15여대의 차량은 사막을 가로질러 모래언덕을 일으키며 질주했다. 중간중간 몽골 이동가옥인 게르와 등성등성 난 폴을 뜯고 있는 가족무리가 보였다. 원편으로 아른거리는 호수가 보였다. 하지만, 그것은 신기루였다.

조림지도 모래는 대부분 날아가고 자갈과 딱딱한 굳은 땅만 남은 사막이었다. 나무를 심기 위해 땅을 파는 도중 많은 삽이 부러졌다. 물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황폐한 땅이지만 여름에는 풀이 드문드문 자라난다. 물론 그마저도 많이 사라지고 있다.

이충행기자 golee@kwangju.co.kr

## "5·18 정신은 憲裁 태동의 바탕이자 준립 근거"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헌재소장 중 첫 5·18 참배

'5·18 정신은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이자 희망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헌법재판소 수장이 표현한 5·18 정신이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13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묘지를 찾아 참배하고 윤상원·박관현 열사 묘역 등을 찾는 등 5월 영령들의 넋을 기렸다. 헌법재판소장

의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는 박 소장 1차 처음이다.

헌법재판소는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와 관련, 헌법의 이념과 가치 수호를 위한 상징적인 장소를 직접 찾아 영령을 추모하고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다짐의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5·18 정신이 바탕이 돼 헌법재판소가 태동했고 준립의 근거"라고 했다. 앞서, 그는 방명록에 "5·18정신은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이자, 희망"이라는 글을 남겼다.

박 소장은 이후 광주시청 민원실에서 윤영중헌 헌법재판소 광주지역 상담실을 방문한 뒤 지역 대표와의 간담회에 참석했다가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특강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13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방문, 참배한 뒤 윤상원 열사의 묘역을 둘러보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칼빠든 文 '음참청래'

정청래 최고위원 무기한 직무정지...새정치 내용은 계속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3일 '공갈' 막말 발언으로 주승용 최고위원의 사퇴 등 당내 분란을 일으킨 정청래 최고위원을 사실상 무기한 직무정지시켰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 대표실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최고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분명히 밝혀겠다"며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해 "최고위원회의 출석을 정지시키겠다"고 밝혔다. 선출직 최고위원에게 직무정지 조치가 내려진 것은 정당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다.

당헌 당규에 직무정지 권한이 명시돼 있지 않아 비슷한 성격의 최고위 출석 정지 징계를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한 당 윤리심판원 징계 절차도 조속히 밝

로 했다.

하지만, 여수에 머무르고 있는 주승용 의원은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지금 당에 필요한 것은 친노 패권주의 청산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실행"이라며 최고위원직 복귀 불가 입장을 밝혔다.

김동철 의원도 "미진한 조치며 윤리심판원의 징계 절차를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어? 성경이 읽어지네!

매주 금요일

오후2시 ~ 4시 (10주 과정)

구약 과정 개강 062) 605-1112

광신대학교 평생교육원

**생명사랑 전남**  
Full of Life, Jeonnam

호석같은 남도의 섬에  
전남의 미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섬의 정박을 차지하는 전남의 섬은 우리의 소중한 미래입니다.  
전라남도는 소중한 휴양자살인 섬들을 주민들과 함께 지키고 가꿔  
문화와 테마가 살아 숨 쉬는 섬으로, 세계인의 힐링 명소로,  
주민이 잘 살고 여행객이 행복한 매력 있는 섬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전라남도가고 싶은 섬, 가꾸기  
주민과 함께 = 아이디어 공모 및 지자체 참여를 통해 지역중심의 섬 가꾸기  
이야기가 있는 = 고유의 문화, 역사, 풍광, 식성에 얽힌 스토리텔링 섬 가꾸기  
자연과 공존하는 = 해치는 난개발을 막고 체계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섬 가꾸기  
모두가 즐겨찾는 = 서비스와 체험거리, 볼거리가 많아 관광객이 즐거운 섬 가꾸기 = 즐겁게 일하면서 소득을 창출하는 섬 가꾸기

안도 청산도    여수 금오도    신안 증도    여수 하회도